지행 스님 "원랑선사탑비 '환지본처'하겠다"

제천사암연합회장 취임식서
회장 취임 일성으로 밝혀
제천산업엑스포 성공 기원
출재가 집행부 임원 임명도

유재상 충청지사장

제23대 제천불교사암연합회장 지행 스님(비봉사 주지)이 취임 일성으로 "원랑선사탑비의 환지본처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제천불교사암연합회는 8월 30일 제천 명성유유웨딩컨벤션에서 지행 스님의 회장 취임법회와 '2025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성공기원 법회를 봉행했다.

취임식에는 해봉 스님(영천사 원로), 구산 스님(태고종 호법원장·도선정사)을 비롯한 지역 스님들과 김창규 제천시장, 박영기 제천시의회 의장, 엄태영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지행 스님은 취임사에서 "원랑선사탑비는 반드시 본래의 자리인 제천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 불교계,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환지본처를 반드시 성취하겠다"고 선언했다.



8월 30일 제23대 제천불교사암연합회장에 취임한 지행 스님이 "원랑선사탑비의 환지본처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연합회기를 받은 지행 스님.

보물로 지정된 원랑선사탑비는 제천 한수면 동창리 월광사터에 전해오던 탑비로, 1922년 경복궁으로 옮겨져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 중앙 로비에 전시되고 있다. 원랑 선사는 문성왕 18년(856) 당나라에 유학해 11년간 정진하고 귀국한 뒤 월광사에 머물렀다. 탑비는 원랑 선사 입적 후 진성여왕 4년(890)에 세워졌다.

지행 스님은 "탑비의 귀향은 단순히 문화유산의 반환을 넘어 제천 불자와 시민이 근본을 회복하는 길이며, 후손들에게 불교의 지혜와 가르침을 전하는 소중한 과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탑비가 제천으로 돌아오는 날까지 한결같은 정성과 서원을 이어가겠다"며 "제천이 중원불교문화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연합회가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내년에 열리는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엑스포는 불교의 자비와 지혜를 세계와 나누는 큰 공덕의 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산 스님은 격려사에서 "23대 회장단의 출범은 제천 불교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연합회가 안정 속에서 내실을 다지고 대승 조화의 가치 아래 한층 더 성장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연합회 집행부는 총괄운영위원장 의림정사 혜명 스님, 수석부회장 진철 스님, 부회장 송학사 보성 스님, 총무 자은사 지담 스님, 사회국장 약수사 범수 스님, 홍보국장 도성사 도성 스님, 사무총장 오명권, 사무국장 오윤화, 재무국장 신광보, 어머니법회 관음행 사공종순 회장과 조경선·조혜원 부회장, 문사국장 김재덕을 위촉·임명했다.

이어 연합회 발전에 헌신한 자인심전 법회장, 보리수합창단 강유정 지휘자, 반주자 장지혜 보살에게 특별 공로패를 수여했다.

수도사, 해군 가족과 사찰음식·명상 체험

8월 30일, 2함대 장병 등 50여 명
주지 적문 스님, 연근지짐 등 시연


명상체험행사에서 죽비를 치고 있는 적문 스님.

아직 늦더위가 가시지 않은 8월 30일, 불교 전통문화와 명상의 지혜가 해군 가족들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을 전했다.

평택 수도사(주지 적문 스님)는 해군 제2함대사령부·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와 함께 '해군가족과 함께하는 사찰음식 및 명상 체험' 행사를 열었다. 수도사는 서해안을 지키는 2함대 해군 장병과 가족, 지역 주민 등 50여 명을 사찰로 초청해 불교 전통의 가치를 몸소 체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수도사 경내에 마련된 체험장에서는 사찰음식 명장이자 연구소장인 주지 적문 스님이 직접 '연근지짐'과 '옥수수 장떡'을 시연하며 사찰음식의 철학과 의미를 설명했다. 참가자들은 스님의 지도로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보며, 절제와 조화 속에 깃든 사찰음식의 정신을 느꼈다. 이어 함께 한 점심 공양에서는 수도사가 준비한 새싹비빔밥과 참가자들이 만든 음식을 나누며 공동체적 기쁨을 나눴다.

식사 후에는 원효 대사 깨달음체험관으로 이동해 명상을 실참했다. 장병 가족들은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을 다스리고 호흡을 가다듬으며 내적 평온을 경험했다.

적문 스님은 "서해를 지키는 군인 가족과 함께 전통 사찰음식을 매개로 소통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수도사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군, 불교가 함께하는 치유와 문화의 거점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해군 제2함대 김상욱 중령은 "군 장병과 가족들의 정신적 안정을 위해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을 이어가겠다"며 민·군 상생의 의지를 밝혔다.

한편 행사에는 허성재 제2함대 사령관과 한광희 참모장을 비롯해 해군 가족과 문형철 원효마을 이장 등도 자리를 함께했다.

홍승도 경기남부지사장

지리산의 선율, 천은사서 재즈로 피어나다

'2025 지리산 재즈 페스티벌' 성료
8월 29~30일 1000여 명 동참
대진 스님 "함께 숨 쉬는 공간"

여름의 끝나는 계절, 지리산 자락에서 자연과 음악, 사람을 아우르는 특별한 재즈의 향연이 펼쳐졌다.

구례 천은사(주지 대진 스님)는 8월 29일과 30일 양일간 경내 일주문 앞 광장에서 'It's not your fault, 네 잘못이 아니야'를 주제로 '2025 지리산 재즈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주지 대진 스님을 비롯한 대중 스님과 김순호 구례군수, 장길선 구례군의회 의장 등 1000여 명의 대중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대진 스님은 "아름다운 구례와 지리산, 섬진강의 자연 속에서 좋은 사람들과 음악을 함께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구례는 많은 이들이 더불어 숨 쉬고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며, 이곳에서 재즈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즐길 수 있음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재즈 페스티벌이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을 이어가며 구례를 대표하는 음악축제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편안한 마음으로 지리산과 함께하는 축제를 즐겨 주시길 바란다. 먼 곳에서 찾아 주신 많은 분들께 특별히 감사드린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29일에는 현용선 밴드와 반다지 오르타가 무대를 열었고, 30일에는 시인의 수영장(Piscina del la Poeta), 빅작(Big JEEQ), 마리아 킴 쿼텟(Maria Kim Quartet), 이규재 재즈 컴필레이션(Gyujae Lee Jazz Compilation) 등이 재즈의 다양한 매력을 선보였다.

현용선 밴드는 싱어송라이터 감성의 사운드와 자유로운 즉흥성을 보여줬으며, 반다지 오르타는 '채소밭 밴드'라는 별칭처럼 신선한 브라질리언 재즈로 관객을 사로잡았다.



구례 천은사는 8월 29일과 30일 양일간 경내에서 '2025지리산 재즈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시인의 수영장은 시와 음악을 결합한 독특한 무대로 감미로움을 더했고, 빅직(Big JEEQ)은 각기 다른 음악적 색채를 융합해 강렬한 에너지를 전했다.

한국 재즈 보컬이자 피아노 듀오 아티스트인 마리아 킴은 대중성과 완성도를 겸비한 무대를 선보였다. 이규재 재즈 컴필레이션은 라틴 퍼커션과 스윙, 브라질리언, 힙합 등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독창적인 해석으로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페스티벌 관계자는 영화 '굿 윌 헌팅'의 명대사이기도 한 행사 주제에 대해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를 가지고 있다. 이 페스티벌은 그런 이들에게 '네 잘못이 아니다'라는 따뜻한 공감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울산 해남사 무료 경로식당, 성남동 이전

8월 30일, 개소식에 300명 참석
30년 운영 경로식당 재개발 이전



영축총림 통도사 울산 포교당 해남사(주지 혜원 스님)는 8월 30일 중구 성남동에서 무료 경로식당 '수자타의 집-북정경로식당' 이전 개소식을 개최했다.〈사진〉 해남사는 지난 30여 년간 북정동에서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해 왔으나 지역 재개발 사업으로 현 위치로 이전하게 됐다.

개원식에는 해남사 주지 혜원 스님, 정토사 회주 덕진 스님, 정관암 주지 대활 스님, 열린선원 주지 창윤 스님, 통도사 사회국장 정원 스님과 김두겸 울산시장, 김영길 중구청장, 박성민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역 주민 3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회, 국민의례, 삼귀의례,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경로잔치 공연, 도시락 공양 순으로 진행됐다.

혜원 스님은 기념사에서 "수자타가 부처님께 올린 우유죽 한 그릇이 깨달음의 인연이 되었듯 이곳의 공양도 자비의 씨앗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웃과 함께 숨 쉬는 도량, 수행과 나눔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북정경로식당은 어르신들을 가족처럼 모시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후원자와 지역 인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축사에서 "이웃을 돕는 마음은 가장 아름다운 실천"이라며 "오늘의 개소식을 축하하고 봉사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영길 중구청장도 "혜원 스님의 원력으로 '수자타의 집'이 위기 속에서도 다시 문을 열게 됐다"며 "고령화가 심한 중구 어르신들을 세심히 보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전한 성남동 경로식당은 넓은 식사 공간과 대기실을 갖춰 어르신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공양할 수 있게 됐다. 해남사는 앞으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2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예정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지공 스님, 태고종 광주전남종무원장 취임

9월 2일 취임법회…"화합으로 미래불교 발전"



태고종 제18대 광주전남종무원장 지공 스님〈사진〉이 9월 2일 취임했다. 스님은 취임식에서 화합과 상생을 바탕으로 미래불교 발전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9월 2일 광주 무등파크호텔 연회장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비롯해 종회의장 시각 스님, 호법원장 구산 스님, 승정원장 금용 스님, 선암사 방장 지암 스님, 전국종무원장협의회장 지허 스님을 비롯해 광주불교연합회장 소운 스님과 고문 도성 스님, 부회장 중현 스님,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해 자리를 빛냈다.

지공 스님은 취임사에서 "부처님 법단에 모인 모든 이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화합한다면 종단과 교구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광주전남 교구가 이웃과 화합하고 상생 발전을 위해 자비의 등불이 되겠다"고 밝혔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격려사에서 "지공 스님은 교구 부원장으로 지역 행정을 두루 살피고, 중앙종회 재경분과위원장으로 종단 정책과 재정을 이끌어 왔다"며 "지공 스님을 중심으로 교구 사찰 간 유대를 공고히 하고 중앙과 긴밀히 소통해 종단의 모범 교구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공 스님은 순천 태고총림 선암사에서 성관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사미계와 구족계를 수지하고 종사 법계를 품수받았다. 광양 도선사 주지, 광주전남종무원 재무국장, 교구 종회의원, 중앙종회의원(15·16대), 광주전남종무원 부원장, 광주불교사암연합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선암사 종회의원과 광주 도선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황룡사, 국악엑스포 성공 기원 음악회

8월 31일, 제2회 산사음악회
"불교문화와 국악 마음 울림"



영동 황룡사(주지 종림 스님)가 오는 9월 12일 개막하는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국악 선율로 물든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사진〉

8월 31일 황룡사 대웅전 앞 특설무대와 경내 일원에서 열린 제2회 황룡사 산사음악회에는 영국사 주지 현우 스님, 강성규 영동군 부군수, 정영옥 자비실천재가노인복지센터장 등 불자와 군민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산사음악회는 9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열리는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의 성공을 기원하는 특별한 무대로 꾸려졌다.

종림 스님은 인사말에서 "황룡사 산사음악회가 불교 전통문화와 국악의 만남을 통해 군민들의 마음에 울림과 평안을 전하기를 바란다"며 "특히 영동세계국악엑스포의 성공을 기원하는 오픈 행사로서 지역 문화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영철 군수는 강성규 부군수가 대독한 인사를 통해 "영동은 국악의 고장으로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국악엑스포를 준비하고 있다"며 "황룡사 산사음악회가 무더위에 지친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국악엑스포에도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음악회 1부에서는 '정정미 명창의 국악애숲'의 길놀이, 판소리, 아쟁 산조춤이 펼쳐졌고 영동유치원, 상촌초 및 인근 어린이들로 구성된 국악애숲 어린이소리단이 무대에 올라 '아름다운 나라' 등을 합창했다. 2부에서는 이동환의 통기타 연주, 손창희의 색소폰, 박인환의 트로트 공연이 이어지며 흥겨운 분위기를 더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분당 대광사, 불곡산 가을빛 예술제 연다

9월 20일, 김준수 김연우 등 무대



성남시민과 함께하는 '분당 대광사 가을빛 예술제'가 열린다.

천태종 분당 대광사(주지 경혜 스님)는 9월 20일 오후 7시 경내 특설무대에서 '가을빛 예술제'를 개최한다. 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이번 행사에서는 가수와 합창단 등이 깊어가는 가을 정취 속에서 음악과 전통이 어우러지는 무대를 선사한다.

먼저 폭넓은 팬층을 보유한 가수 김준수와 감성 발라드의 대표주자 김연우, 트로트 가수 우연이가 무대를 선보인다. 이어 대광사 합창단의 장엄한 합창과 다문화팀의 베트남 전통춤 공연이 펼쳐진다.

주지 경혜 스님은 "올해는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열린 축제를 지향하며, 세대를 아우르는 무대 구성으로 지역 사회 전체가 어울릴 수 있도록 했다"며 "깊어가는 가을밤, 음악과 예술으로 따뜻한 빛을 전하는 예술제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031-715-3000

노덕현 기자